

원폭의 기억

노구치 하치오(野口八男)

또 8월 9일이 다가온다. 그때부터 50년이 지났지만 ‘그날’ 이 돌아올 때마다 분해서 견딜 수 없다. 당시의 생생한 현실을 기록하려고 펜을 들었지만 결국 죽은 처자식의 기억으로 끝나고 말았다.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마음으로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펜을 집어 던지고, 한밤중에 몇 번이고 산길을 멍하니 걸어다녔던가. 기억은 생생하게 마음 속에 살아 결국 장문을 쓰는 중에도 이것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당시 나는 나가사키 경찰서의 숙사에서 집무 중에 폭음을 듣고 창박을 본 순간 그 섬광을 보고 본능적으로 벽에 엎드렸는데 작은 부상을 입는 것으로, 몸에 이상이 없었던 것은 천우신조였다. 그러나 같은 시각 아내와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날은 원폭으로 전재산과 아내, 하나뿐인 아들과 대학병원 간호사인 동생, 그렇게 3명을 잃었는데 그 중 아내의 죽음이 정말 참혹했으며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펐다. 나는 신형폭탄이 낙하한 지점이 우라카미 방면이라는 것을 알고 가족이 걱정되었지만 공무상의 책임감은 나를 곧바로 집으로 가게 하지 않았다. 방공본부와의 연락과 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의 진압, 부상자들의 처리, 해상피해자의 구출과 불이 난 채 표류하는 선박의 처리 등이 일단락된 것이 오후 5시 전후였다. 그 무렵은 주위가 전부 타서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나는 허가를 얻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내달렸다. 집까지 자전거로 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음만 바빠 갈 수 있는 곳까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페달을 밟았다.

나가사키역부터는 자전거를 밀거나 끊어진 다리를 돌아 차단된 도로를 넘어 시로야마 시민주택지에 닿았는데 그 시간이 오후 7시 30분경이었다. 주변의 모습은 비참한 지옥의 모습과 같아 글로는 표현하기 힘들었다. 얼굴의 앞뒤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타 버린 사람이 몸을 구부리며 여러가지를 요구하였는데 나는 구조대가 곧 온다는 말로 위로하며 수통의 물을 나눠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마을까지 가는 중에 파손된 수도로부터 나온 물을 받아 채워진 수통의 물을 4번이나 먹었다. 특히 가슴에 와 닿았던 것

은 구조대의 손에 의해 방공호로부터 옮겨져 온 사람들이 도로 위에 누여져 있는 것이었다. 그런 것들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모습들이었다. 시로야마 일대는 완전히 연소하여 방향감을 잡을 수 없었다. 겨우 짐작으로 찾은 우리 집은 목탄이 불탄 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실 뿐이었다.

‘모든 게 끝났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어’

조용히 명복을 빌었다.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주검을 찾아 어두워진 도로에 누워 있는 시체를 돌아보던 중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고랑에 누워 있던 소년의 시체를 발견하여 달려갔다. 소년을 쓰다듬으며 여기저기를 보았는데, 결국 배 부분에 남아있던 허리띠를 보고 아들이 아님을 알았다.

‘아아, 어떻게 될까’

‘둘은 함께 재로 변한 걸까’

‘그러나 포기할 순 없어’

나는 불이 나지 않은 곳을 돌아 다른 방공호로 향했다. 방공호를 향해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죽은 시체들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아내와 아이는 없었다. 어두워지자 주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있는 힘껏 아내와 아이를 불러 보았지만 메아리만 들릴 뿐이었다. 절망감은 절절히 마음을 괴롭혔다. 결국 눈물이 앞을 가렸다. 결국 포기하고 도로를 따라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은 다시 찾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나 같은 곳에 근무하고 있던 젊은 여직원이 시로야마(城山)에 살고 있는 부모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겠다고 했다. 그 직원은 우리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그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몰라 이것을 계기로 다시 시로야마로 향했다. 오전 10시 반 정도 시로야마에 닿아 전날 저녁에 돌아보았던 방공호를 일일이 확인하던 도중에 “아버지!”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당시는 주위의 여러 곳에서 아이와 어른이 가족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별다른 기색없이 길을 재촉하였는데 또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소리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자 멀리 떨어진 도로에 한 명의 소년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이쪽을 보고 있었다. 혹시라는 생각에 이름을 부르자 대답을 했다. 한 번 더 이름을 크게 부르자 또 대답을 했다.

‘확실한 내 아이다!’

‘뭐라고 해야할지 포기하고 있었는데 살아있다니’

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그 장소에서 글자 그대로 뛰어 오르며 기뻐했다. 그리고 같이 온 여직원과 함께 도로를 뛰어 내려갔다. 아이는 셔츠 한 장에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앉아 있었는데 웃는 얼굴이었다. 몸을 보자 배 왼쪽에 손바닥 크기의 피멍과 얼굴에 계란만한 혹이 생긴 것외에는 화상도 없었다. ‘이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

나는 그때만큼 기뻐던 적은 일찌기 없었다. 여름의 더위도 잊은 채 나는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어머니는 집과 함께 타 버렸다는 것과, 자신의 상처는 지붕이 무너졌을 때 목재가 덮쳤을 때 생겼다는 것과, 전날 밤은 신사 뒤 방공호에 있었는데 너무 추웠다는 것과, 어제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과, 어제 도망칠 때는 맨발로도 아프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프다는 것과, 허리도 아파서 걸어 다닐 수 없게 되어 2시간 걸려 아주 짧은 거리를 내려왔다는 것과, 내려 온 이유는 밑에서 밥을 나눠 준다는 소리를 듣고 왔다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우선 아이를 데리고 갈 생각에 철모를 목 앞으로 걸고 아이를 업고 걷기 시작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해 중간에 쉬는 동안에는 또 많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버지, 인간은 말이죠. 아무도 믿질 못 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20년 걸려 깨우친 것을 아이는 14살에 깨달았다. 업인 채로 떡엄떡엄 이야기하는 참화의 모습은 내 가슴을 옥죄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날 아침 공습 경보가 해제되어 아내와 아이는 방공호에서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방에서 쉬고 있었을 때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덮친 지붕에 두 사람은 꿈쩍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들은 흙더미 속에서도 목재를 치우고 겨우 밖으로 빠져 나왔다. 아들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기와를 한 장씩 한 장씩 치우며 어머니를 발견하였지만 어머니 위에는 천정의 굵은 목재가 가로로 몸을 덮치고 있고 그 위에 또 목재들이 쌓여 있어 목재를 자르든가 아니면 천정의 굵은 목재를 끌어 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들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톱이나 칼이 주위에 있을 턱이 없었다.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어머니를 안타깝게 쳐다보는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근처의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도와 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무도 도와 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한번 더 있는 힘껏 목재들을 끌어 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는 뭔가를 열심히 아들에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들 귀에

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사이 건너편 집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다. 연기로 호흡이 곤란해졌다. 초초함이 더해져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 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이젠 어쩔 수 없어, 나는 괜찮으니 너나 빨리 도망가, 너라도 살아야지!”

하며 외쳤다. 또 자신의 유골은 사가(佐賀県)에 묻어 달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아들은 어쩔 수 없는 생각에 결국 어머니에게 마지막을 전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아, 아들아!”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연기 속을 헤치고 피난가는 사람들을 울며 따라갔다. 살아 있으면서 화장을 당하는 운명을 기다리며 아이를 피난시킨 어머니, 불에 데이며 살아있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일어서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내게 다가왔다.

아들은 일단 경찰서에 수용한 후 친척에게 부탁했지만 뒤에 생각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11일 아침, 재가 된 집에서 아내의 변한 모습과 대면할 수 있었다. 손은 가슴에 모으고 양다리는 가지런히 앞으로 향하여 마치 성불인 것 같은, 죽음을 각오하며 맞이한 아내의 최후였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또 피로웠을까’

그런 말을 하며 명복을 빌었다. 그리고는 남은 유골을 주워 들고간 작은 관에 넣어 생전에 알고 지내던 절에 가서 계명을 받고 장사를 지냈다. 13일 오후쯤 아이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일을 끝내자마자 자전거로 내달렸다. 열도 높지 않고 허리도 많이 좋아졌다고 아들은 웃고 있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은 아들과 같이 잤다. 아들은 내 몸에 꼭 달라 붙어 잠을 청했는데 흐느끼며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8월 8일 오후 9시경 경계경보가 울려 밖으로 나간 채로 여유있게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던 자신이었다. 아들은 그 사이 무서운 생사의 기로를 헤매며 아버지와 그후 처음으로 이렇게 정을 나눈 기쁨에 그렇게 운거라 생각하였다. 나도 아무말없이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다. 아들은 얼굴을 내 가슴에 묻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치만 내가 어떻게든 효도할게요.”

라고 했다. 나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내린다.

‘얼마나 착한 아들인가’

‘지금까지 병약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무던히도 시켰는데…’

“아버지, 이거 이곳 아주머니한테 받은 건데 아버지 드세요.”

하며 베개 위쪽에 놓여 있던 배 한 조각을 내 손에 건넸다.

‘그렇게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던가!’

나는 가뜰스한 마음에 아무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책임에 반복해서 아쉬워했다. 나는 새벽을 기다리며 헤어지기 싫어하는 아들을 타일러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왔다. 아직 전쟁 중이라 한 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8월 15일 패전의 조칙이 내려졌다. 긴장하고 있던 전직원의 얼굴에 불안하고 슬퍼 보이는, 그러나 웬지 안심되는 그런 복잡한 표정을 띄웠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나의 지옥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16일 아침 아들의 상태가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아들은 외견상 변한 것은 없었지만 머리가 빠진다고 자신이 직접 머리를 뽑아 보여 주었다. 다리나 손의 일부에 반점이 생겼다고 하고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할지 마을의 의사다 모른다고 했다. 나가사키에 데리고 가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렇게 옆에서 상태를 지켜보며 밤을 맞이했다. 밤이 되자 열이 나고 설사가 심했다. 아들은 어제 저녁부터 설사가 계속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어린 마음에 참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있는 동안에도 빈번하게 아들은 설사를 했다. 그때마다 등에 업고 밖으로 나갔는데 나중에는 기저기와 치울 것을 받아와 누운 채로 설사를 하도록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와서 안심한 모습이었는데 설사가 심해지자 불안한 얼굴을 하며 나를 쪽 쳐다보았다. 나는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며 나가사키로 가 경찰서와 제병공장에서 천과 얼음을 받았다. 그리고는 자전거로 달려 의사에게 아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약을 받아 아들에게로 돌아왔다. 아들은 그 무렵 신기했던 얼음을 보자 기뻐했다. 오후에는 제법 상태도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오후 6시쯤 죽을 먹이려고 하자 아들은 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하자 그것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호흡이 조금 거칠어지며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친척에게 뒤를 부탁하고 아들에게는 2시간만 견디면 나가사키에서 의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자전거를 탔다. 아들은 뭐라 할 수 없는 슬픈 일

굴을 하며 그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옆에 있어 달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 포기를 하며 빨리 돌아오라는 말을 했다. 아들과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도중에 날씨가 바뀌어 호우와 천둥번개를 만났고, 나가사키에 겨우 도착했지만 그때는 미군이 오늘이나 내일 상륙하기 때문에 시내의 부녀자들은 모두 피난을 가라는 지령이 내려져 있을 때라 시내는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경찰서에는 직원들이 가족 걱정으로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였다. 사방팔방으로 의사를 수소문했지만 의사도 없을 뿐더러 타고 갈 자동차도 없었다. 결국 경찰서 서장님의 힘으로 의사를 설득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를 넘어 있었다. 그 시간은 아들이 이미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찾으며 스스로 손을 합장한 채 숨을 거둔 후였다. 8월 17일 오후 11시 33분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은 끝내 이 세상을 떠났다.

‘아아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나는 아들의 몸을 잡고 울었다. 아직 체온이 따뜻한 아들을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답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버지도 못 보고 죽은 아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다. 이틀이 지난 19일 뼈로 변한 아들을 흰 천으로 감싸고 나가사키로 되돌아왔다.

‘여기는 어디인가!’

‘저곳은 무엇인가!’

그런 말을 죽은 아들과 나누며 자전거의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원폭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많다. 그 사람들의 가슴에도 모두 그런 슬픔들이 가득차 있을 것이다. 묘도 세웠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 주지 못한 아내와 유일한 혈육인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한 괴로움은 일생동안 잊혀지지 않을 일일 것이다. 내년은 7주기를 맞이하는 아내의 유언대로 뼈를 사가의 묘지로 이장할 것이다.

1950년 7월 8일